

KRIVET Issue Brief

2014

56호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4년 7월 30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4년제 대졸자의 졸업유예실태와 노동시장 성과

- 대졸자의 17.9%가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으며, 남자(20.8%)가 여자(14.0%)보다 졸업유예율이 높음.
- 상위 10개 대학의 졸업유예율은 31.0%로 11위 이하 대학(15.9%)보다 높고,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(22.2%)이 가장 높게 나타남.
- 부모의 소득수준과 졸업유예율 간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어,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빈곤층 자녀일수록 졸업유예율이 높음.
- 졸업유예자의 토익 점수는 789점으로 일반졸업자(754점)보다 35점이 더 높고, 인턴 경험 비율도 졸업유예자(17.5%)가 일반졸업자(13.8%)보다 높음.
- 졸업유예자의 선망직장 고용률은 31.3%, 월평균임금은 221만 원으로 일반졸업자보다 각각 5.9%p와 26만 원이 더 높고, 비정규직 비율은 27.7%로 5.7%p 더 낮아 졸업유예자의 취업의 질이 더 우수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대학생의 자발적 졸업유예가 증가하고 있음.

- 취업 실패나 스펙 쌓기로 인해 졸업유예자들이 급증하고 있음.
 - 2011년 대비 2013년 졸업유예자는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,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도 2011년 26개교에서 2013년 33개교로 늘어남.¹⁾
-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졸업유예가 취업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.
 -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추세임.
- 이 글에서는 졸업유예자와 일반졸업자의 특성 및 취업 준비도와 취업 성과를 비교하여 졸업유예가 취업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었던지를 살펴보고자 함.

| 분석 자료: 2007~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(GOMS) 1차년도 조사 자료

- 분석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(GOMS) 2007~2011년 1차년도 조사자료
- 분석 대상: 졸업 당시 연령이 30세 미만인 4년제 대학 졸업생 54,357명(의약계열 제외)
 - 졸업유예자는 공식적인 졸업유예제도와 무관하게, 휴학을 제외하고 9학기 이상(복수전공자는 11학기 이상)을 이수한 자로 정의
 - 선망직장은 대기업(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)과 외국인회사, 정부기관, 공기업 및 정부 투자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으로 정의하고, 이러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선망직장 취업자로 구분

| 각주 |

1) 안민석의원 보도자료 (2014.4.4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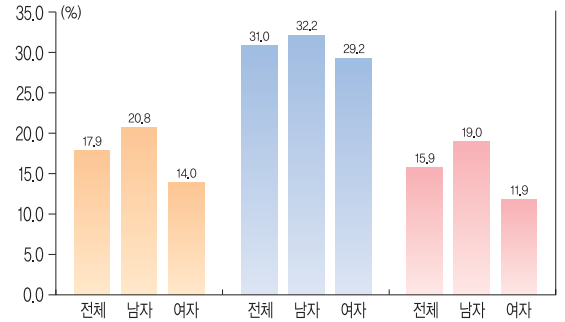


KRIVET 모바일용

02 대학교 졸업유예자의 특성

상위 10개 대학 졸업자의 졸업유예율이 더 높음.

- 4년제 대졸자 중 17.9%가 졸업유예를 경험하였으며, 남자는 20.8%, 여자는 14.0%가 졸업을 유예함.
 - 남자는 군 복무로 졸업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여자보다 높은 졸업유예율을 보이는 것이라 판단됨.
- 상위 10개 대학²⁾ 졸업자의 졸업유예율은 31.0%로 11위 이하 대학(15.9%)보다 15.1%p 더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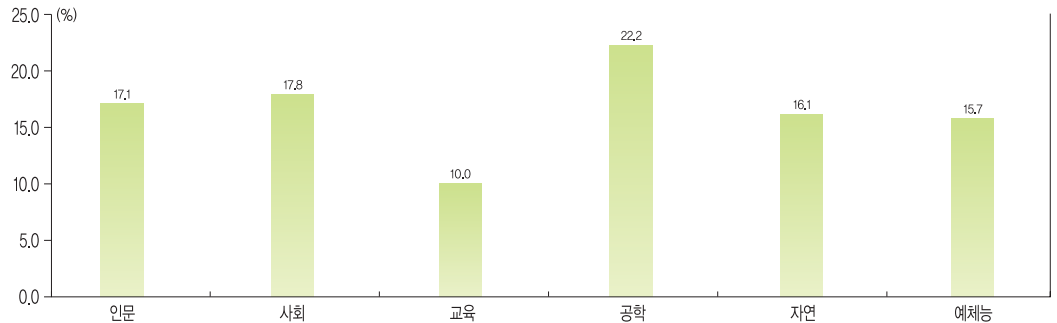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성별 및 대학 순위별 졸업유예율

각주 |
2)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순위자료 기준

공학계열의 졸업유예율이 가장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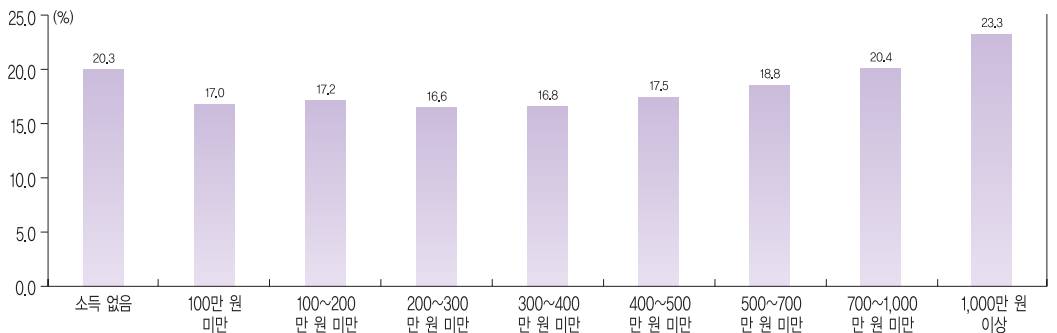
- 공학계열의 졸업유예율은 22.2%로 가장 높고, 교육계열은 10.0%로 가장 낮음.
 - 사회계열은 17.8%, 인문계열은 17.1%, 자연계열은 16.1%, 예체능은 15.7%로 나타남.



[그림 2] 전공계열별 졸업유예율

부모의 소득수준과 졸업유예율 간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음.

-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~400만 원 정도일 때 졸업유예율이 가장 낮음.
 -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,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3.3%로 가장 높고, 700~1,000만 원 미만인 경우 (20.4%)와 소득이 없는 경우(20.3%) 순으로 높음.
 - 빈곤층 자녀의 경우 재학 중에 생활비나 학비 충당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, 8학기 이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음.
 - 빈곤층 자녀를 제외하면,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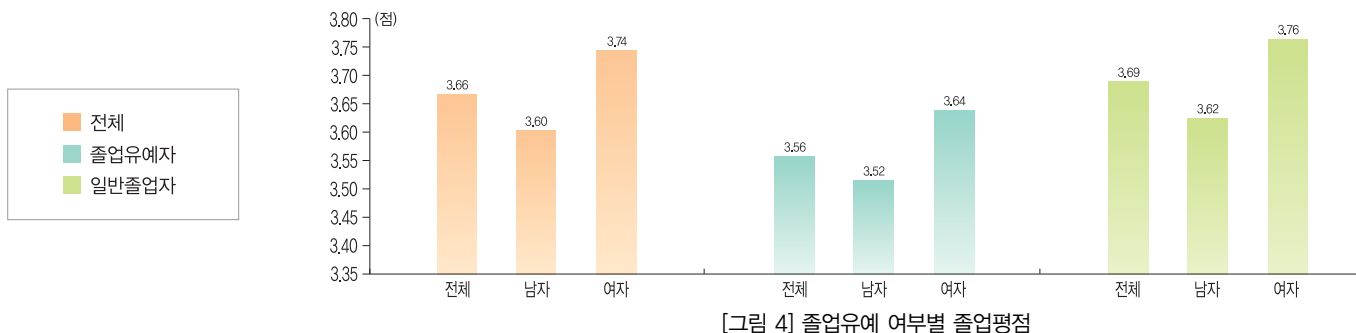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현재 부모님의 월평균소득과 졸업유예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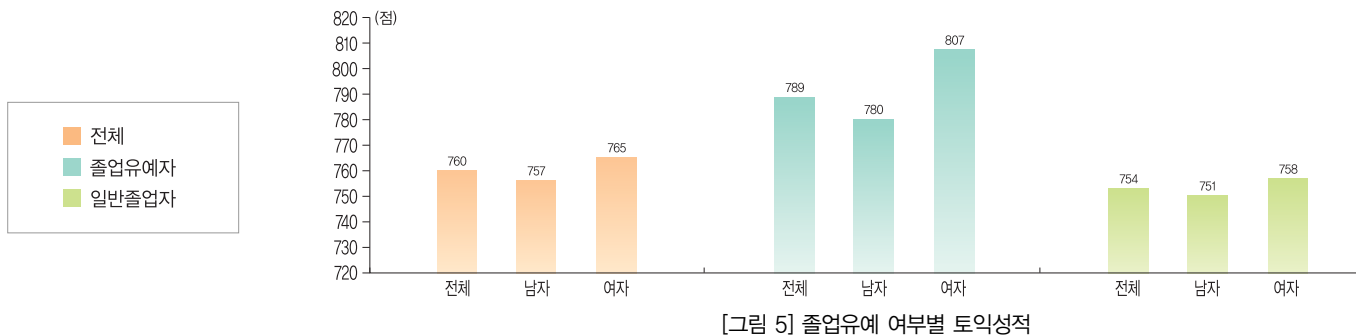
03 졸업유예자의 취업 준비 실태

| 졸업유예자의 영어성적과 인턴 경험 비율이 일반졸업자보다 더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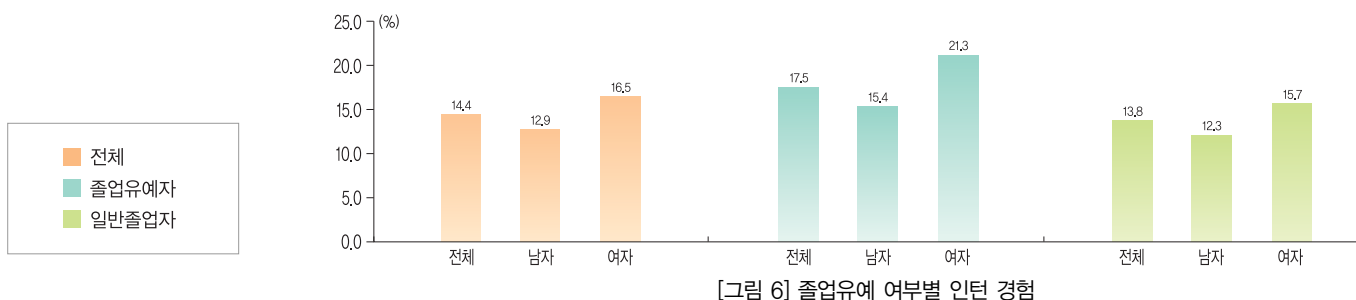
- 졸업유예자의 졸업평점은 3.56점, 일반졸업자는 3.69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(0.13점)가 크지 않음.
 - 졸업평점은 최소 4년간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.



- 반면, 졸업유예자의 토익 성적은 789점으로 일반졸업자(754점)보다 35점이 높음.
 - 영어 성적은 단기간의 집중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판단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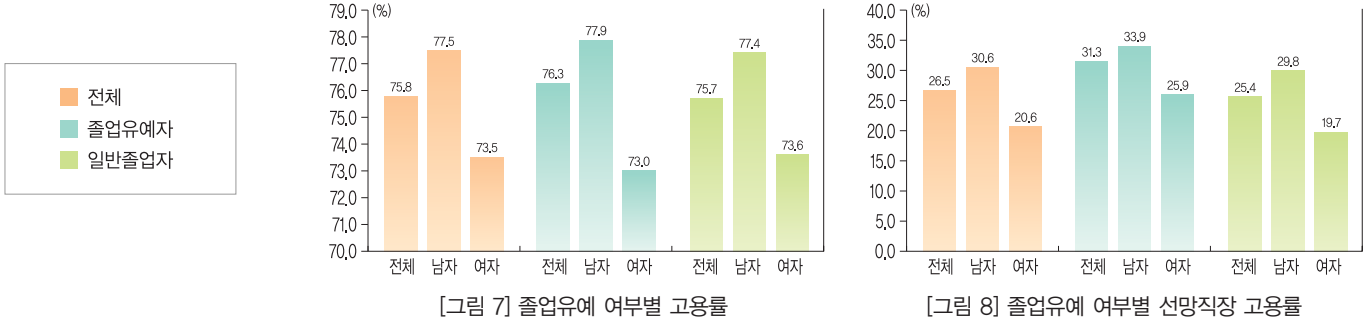
- 졸업유예자의 인턴 경험 비율은 17.5%로 일반졸업자(13.8%)보다 높음.
 - 성별로 살펴보면, 남자 졸업유예자는 15.4%이고, 여자 졸업유예자는 21.3%로 여자가 5.9% 더 높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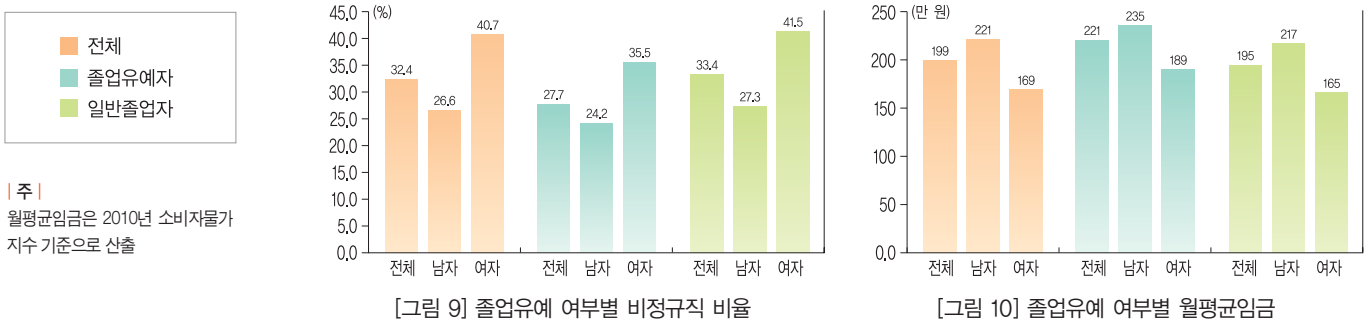
04 졸업유예자의 노동시장 성과

|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졸업유예자의 성과가 더 좋음.

- 졸업유예자의 고용률은 76.3%로, 일반졸업자(75.7%)와 비교하여 큰 차이 없음.
 - 졸업유예 경험이 취업 가능성 자체에 있어서 큰 이득을 주지는 않음.
- 그러나 선망직장 고용률을 살펴보면, 졸업유예자(31.3%)가 일반졸업자(25.4%)보다 5.9%p가 더 높음.
 - 선망직장에서 스펙 중심의 채용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됨.



- 졸업유예자는 일반졸업자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월평균임금이 높아 취업의 질은 더 우수함.
 - 졸업유예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7.7%로 일반졸업자(33.4%)보다 5.7%p 낮음.
 - 월평균임금의 경우, 졸업유예자는 221만 원으로 일반졸업자(195만 원)보다 26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남.
 - 상위 10개 대학 졸업유예자(261만 원)는 일반졸업자(248만 원)에 비해 13만 원 더 많이 받고, 11위 이하 대학의 졸업유예자(209만 원)는 일반졸업자(188만 원)보다 21만 원 더 많이 받아 졸업유예자의 높은 노동시장 성과가 단지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만은 아님.



주 | 월평균임금은 2010년 소비자물가 지수 기준으로 산출

05 시사점

- 졸업유예자는 선망직장 고용률과 월평균임금이 높고,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 졸업유예가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.
 - 이는 토익성적과 인턴 경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이 졸업유예기간에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보임.
 - 그러나 졸업유예가 계속 증가한다면 노동시장 진입 연령 상승과 학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.
- 불필요한 졸업유예를 하지 않도록 과도한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실무능력·경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.
 - 영어 점수와 같이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스펙보다는 직장경력, 재학 중 일 경험 등 보다 실무적인 역량이 강조되어야 함.
- 취업 시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으로 인한 졸업유예는 억제할 필요가 있음.
 -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에 대한 채용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함.

양 정 승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